

클레이튼 커쇼 은퇴한다

18년 다저스에서 활약, "슬프지 않다"

클레이튼 커쇼(사진)가 은퇴를 발표했다. LA 다저스의 상징과도 같은 왼손 투수 커쇼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시즌을 끝으로 마운드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15 분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커쇼는 아내 엘렌과 네 자녀, 동료 선수, 코치진, 구단 관계자들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여러 차례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슬프지 않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하다. 다만 감정이 북받쳐 오를 것뿐"이라고 말했다.



지은 순간, 커쇼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포스트시즌의 그림자'를 털어냈다. 팬들과 동료들에게 그는 단순한 에이스를 넘어, 헌신과 겸손의 상징이었다.

■ 7월에 통산 3,000 탈삼진 달성

올해 커쇼는 무릎과 발가락 수술을 이겨내고 5월에 복귀했다. 7월에는 통산 3,000탈삼진을 달성했고, 올스타전에 초청받아 내셔널리그 선수들을 격려하

기도 했다. 8월에는 다섯 차례 선발 등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평균자책점 1.88을 기록했다. 올 시즌 성적은 20경기 10승 2패, 평균자책점 3.53이다.

로버츠 감독은 "포스트시즌에서도 그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스 먼시는 "아직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퇴 발표 하루 전, 커쇼는 아들 찰리와 함께 다저스 타디움 그라운드에서 시간을 보냈다. 기자회견에서는 가족과 구단, 팬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아내 엘렌이 쓴 글을 읽기도 했다.

■ 명예의 전당급 이력

- 2008년 데뷔 후 18년간 다저스 한 팀에서만 뛰며 커쇼가 남긴 기록은 화려하다.
- 통산 3,000탈삼진 달성(역대 20번째)
- 사이영상 3회 수상(역대 11명만 달성)
- 2011~2014년 4년 연속 MLB 평균자책점 1위(역대 유일)
- 통산 평균자책점 2.54(라이브볼 시대 1,500이닝 이상 투수 중 2위)
- 통산 222승 96패, 승률 .698(통산 300경기 선발 이상 투수 중 최고)
- 올스타 선정 11회
- 2014년 내셔널리그 MVP
- 월드시리즈 2회 우승(2020년, 2024년)

커쇼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에 있었다"며 "혹시 마음이 바뀔까 싶어 조용히 했지만, 아내가 미리 공개하는 게 낫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커쇼는 20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이 정규시즌 홈 마지막 선발 등판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그는 이 세대 최고의 투수"라며 "꾸준함과 경쟁심, 책임감 모두 최고였다. 10년간 함께하면서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프레디 프리먼은 "처음 리그에 들어와 상대할 때부터 놀라웠다. 지금은 동료로서 매일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한다"며 "커쇼는 야구장 안팎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무키 베츠는 "커쇼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 전성기와 도전

2010년대 커쇼는 압도적인 존재였다. 2010~2019년 동안 156승을 거두며 사이영상, MVP를 휩쓸었다. 같은 기간 평균자책점 2.31로 메이저리그 전체 선발 투수 중 1위였다. 그러나 이후 허리, 어깨, 팔꿈치 등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2020~2025년 5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 4위(2.9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유지했다.

2020년 텍사스 알링턴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

손흥민, MLS 데뷔 첫

해트트릭 '이주의 선수' 선정



▲ 손흥민이 1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2025 MLS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KNTFootball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무대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데뷔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이주의 선수'에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34라운드 경기에서 LAFC 이적 후 첫 해트트릭을 달성, '미켈 롭 울트라'가 후원하는 '이주의 선수'에 뽑혔다"고 발표했다.

'이주의 선수'는 MLS 사무국 주관으로 북중미기자협회 투표(75%)와 팬 투표(25%)를 합산해 매 라운드마다 결정된다. 손흥민이 MLS 데뷔 이후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3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16분 추가골, 이어 후반 37분 데니스 부앙가의 도움을 받아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그의 활약 속에 LAFC는 4-1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MLS 데뷔 6경기 만에 해트트릭을 작성한 손흥민은 시즌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34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웹사이트 QR코드

A' DENTISTRY

20년 경력의
치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소문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각종보험>

Anthem AARP Medicare Advantage UnitedHealthcare

Guardian Humana

Clever Care Healthy Living aetna

DELTA DENTAL

입소문으로 왔다가

선택! 좋아요! 추천!

까지 하고 가는
당신의 미소를
찾을 수 있는 기회

- ✓ 임플란트, 치주질환
- ✓ 신경치료, 사랑니 발치
- ✓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 각종 모든 치과 진료, 자체 랩보유





Dr. James Jun
Tufts Dental School
Periodontist



Dr. John Lee 원장
Tufts Dental School

무료상담, 예약전화



JOHN LEE, DMD

T.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

